

젊은 장교시절에 미 8군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신고를 하고 캠프를 샅샅이 돌아 보았다. 넓은 운동장에 커다란 실내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잔디코트, 라켓볼 센터, 커다란 도서관, 장교클럽, 하사관 클럽, 레크리에이션 센터, 모터 풀, 엄청난 물건들이 꽉 차 있는 PX, 영화관, 카페테리아 등등등 참으로 방대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가 페이브먼트를 지나 산기슭로 돌아서는데 ‘햇 배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 왔다. 도대체 저기는 뭐하는 곳일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들이 안내를 한다. 알고보니 일종의 증기탕 시설이었다.

미군에서 2년여 근무하는 동안 나는 BOQ 부터 시작하여 교통,통신,교육,스포츠,오락 시설 등 미군 부대의 모든 시설들을 철저히 활용하였고 그들의 발전된 제도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다. 그들의 리더쉽과 그들의 교육훈련, 그들의 병영문화와 그들의 복지제도, 그들의 정보시스템과 그들의 평가제도 등등 나는 사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미군의 교리와 매뉴얼을 무조건 답습하는데 대한 반성이 일고 있는 이 때에 나는 진정으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곰곰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나에게 선명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그들의 하사관 제도이다.

로빈슨 중사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 어린이 야구장에서였다. 그는 거기서 군 자녀들에게 야구를 코치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후로 그와 자주 만나면서 나는 그에게서 자원봉사정신을 배웠고, 프로군인의 정신을 배웠고 또 미군의 하사관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젊은 장교인 나에게 그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군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당시 그는 왜 나에게 그토록 멋있게 보였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몇가지 그의 특징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첫째는 그가 하사관으로서 자신의 일에 정통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그가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 세째는 그의 업무는 그대로 그의 생활의 전부로서 서로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에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전투지원협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우 소령이 최근에 미 국방성 ‘정보관리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장교 및 하사관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아둔한 본인이 미군에서 근무하고 난 뒤, 한참이 흘러서야 깨달았던 것과 비교할 때,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한 이 소령의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년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동기생들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여 처음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우리를 보고 경례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이 든 상사를 불러 세워놓고 일장훈시를 하던 모습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으며 후배들과 특히 전문성을 추구하는 우리 하사관들에게 이 책을 일독해볼 것을 권한다.

21세기 군사연구소장 김진욱

